

사진부 칼럼



8월25일 오후1시 경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을 지났다. 정성스레 만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국내 두 번째로 열리는 중 차별 철폐를 위한 연대의 현장이다.

제2회 서울 동물권 행진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 종각 젊음의 거리를 거쳐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이어졌다. "동물 착취 그만!"을 외치는 시위 참가자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고깃집 사장님, 참으로 역설적인 광경이었다.

채식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동물이기에 동물권의 현주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 차별 철폐를 위해 싸우는 이들의 목소리를, 그저 당신이 치킨을 맛있게 먹을 권리를 침해하는 잔소리로만 듣지 않길.

황보현 사진부 차장기자

어른광장

키푸 마을이 남기고 간 것들

행복을 전해주려 간 작은 마을이 되려 나의 행복이 되어 돌아왔다.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사망년'에 접어들면서 내 미래는 불투명하다 느꼈고,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모두 거쳐 가는 과정이지만, 내가 직접 그 고민을 안게 되니 더 큰 일처림 느껴졌다. 매 순간이 절망이었다.

방향 아닌 방향을 하며 하루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고, 하루는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며 흘러보내기도 했으며, 또 어떤 하루는 모든 연락을 뒤로 하고 잠만 자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내 마음속에 있는 짐을 온전히 떨쳐주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도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도망치듯 해외봉사를 신청했다. 이전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리고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 받고 싶었다.

그렇게 도착한 베트남 난민성에 위치한

키푸 마을에 키푸 초등학교 보수공사는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었지만, 단기간안에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다. 빈곤에 굶주려 여유가 없을거란 생각과는 달리, 버스를 타고 오가며 본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와 행복이 묻어났으며, 자전거를 타고 뛰어노는 아이들에게는 순수함과 해맑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봉사를 통해 부족함을 채워줘야겠다는 본래 생각에서,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마음가짐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이미 충분히 행복한 그들에게, 따뜻하고 돌아가고 싶은 보금자리가 생긴다면 그들의 행복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힘을 가져다주었다.

11박 12일 동안 자그마한 키푸 마을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먼저, 함께 해외봉사를 떠난 20명의 단원들과 협력하는 자세를 배웠다. 극한의 상황에서 서로를 위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으며, 그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

다는 사실을 배웠다. 둘째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배웠다. 지극히도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이 일상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이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이 경험 자체도 값지지만 경험들을 빛내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소중함도 배워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란 존재의 이유에 대해 배웠다. 당장 내 눈 앞이 아니더라도 시야를 넓게 가졌을 때, 내 존재가 도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일들이 분명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당장의 내 앞에 닥친 상황엔 내가 필요 없다고 느낄지라도 여유를 갖고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분명 나는 필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봉사를 통해 내가 전해 준 행복보다, 언어 온 행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22년 삶에 있어 소중한 텃밭포인트가 될 것 같다. 나에게 많은걸 알려준 키푸마을에 더 많은 행복이 겹겹이 쌓여나갔으면 좋겠다.

현지인(사회·17)

Z의 시선

시각의 세대

2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트렌드의 공통점은 시각적 요소가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오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시각이 다른 감각 모두를 이겼다. 이러한 시각의 정복은 일상 이곳저곳에서 깃발을 꽂고 있다.

트렌드를 넘어 필수적인 소통 창구가 되어 버린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는 주로 사진과 함께 업로드된다. 반드시 게시물에 사진을 포함해야 업로드되는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기능은 네이버나 구글을 넘어 검색 포털 사이트의 기능으로도 자리를 잡았다. 사진을 한눈에 모아 보여주기에 쉽게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편리하기 때문에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물을 업로드 하면 유료수를 증명하는 등 그 효과를 인정하는 식당들이 늘고 있다.

따라오는 어두운 면도 있다. 이대 앞 및

집을 찾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인스타그램 세대는 '#이대맛집'을 검색해 나오는 사진 결과들 중에 맛집을 고른다. 시각적 요소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셈이다. 인스타그램 포스팅에 포함되는 사진 설명은 길이나 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맛집을 고르다기보단 멋집을 고르게 된다. 어쨌든 나도 좋은 식당에 가서 예쁜 음식 사진을 찍어 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야 하니까.

언어 또한 마찬가지다. '머박적', '핑언', '커업' 등의 언어 변화 또한 시각적 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한 언어 트렌드다. 대박적 대신 머박적, 명언 대신 핑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가져오는 의미변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이런 단어를 요즘 세대들이 굳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각적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그 영향의 결과가 웃음이든, 소속감이든 요즘 세대들은 그 결과를 위해 시각적

형태 변화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서점에 가도 베스트 셀러의 반열에 오른을 위한 그림 동화책이 등장하고 있다. 예쁜 그림과 단순한 삶에 대한 위로 문구가 주를 이루는 책은 서사 전개를 가진 글이라기보다 시각적 감상과 함께 그를 뒷받침하는 짧은 글귀들이 카드 뉴스처럼 이어진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간결하고 자극적인 결과물을 선호하는 것이다. 역시 시각이다.

각각 세대교체의 순간이 온 것이다. 끊임 없는 사람 세대교체로 사회가 이어져 왔듯, 변화를 받아들일 때 어떤 감각을 예민하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변화가 온 것이다. 이 변화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 누구도 판단할 수는 없다. 논리는 계속되어야만 한다. 논리가 없는 변화는 의미가 없을뿐더러, 위험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모르는 변화는 변화가 아닌 붕괴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김혜진(영문·16)

상록탑

소수자의 시각으로,
소수자의 언어로

김보영
미디어부장

철 지난 드라마 속 가난한 주인공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밝고 씩씩한 얼굴이다. 월세가 밀려서 집에서 쫓겨나고 일자리가 사라져 수중에 돈이 없어도 마치 만화에 등장하는 캔디처럼 자신 앞에 닥친 가난이라는 고난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충분히 무찌를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성취를 이룬 내용의 영화는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은 장애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와 좌절을 극복하고 결국엔 성취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사람들은 이렇게 콘텐츠에 재현된 모습을 보곤 감명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친다.

그렇지만 정말 가난이, 장애가 이런 모습일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난은 사람을 치졸하고 구차하게 만든다. 기회를 빼앗고 목을 옥죄는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장애 역시 마찬가지다. 위기와 좌절을 극복하기 보단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차별받고 쉽게 내뱉는 혐오 표현에 상처받곤 한다. 콘텐츠에서 재현되는 모습과는 다른, 현실에 가까운 모습이다.

사회 내부에서 소수 약자의 위치를 점하는 집단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자의 언어를 하고 있는 지배적인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의해 규정지어진다. 소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스스로 내뱉는 외침은 쉽게 무시당하고 지워질 뿐이다.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조차 주류사회의 관점에 의해 말해지고 일컬어진다. 특히 콘텐츠에서 재현되는 소수자는 더욱 그렇다. 콘텐츠 속에서 소수자들은 이토록 쉽게 낭만화되고 타자화된다. 여성, 빈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성소수자 역시 주류 사회의 관점에 의해 그려지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한 뮤직비디오에선 성소수자가 힘들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들을 무지갯빛 하늘 아래서 희망과 꿈을 잃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하며 마냥 밝은 모습만을 그린다. 하지만 현실은 노래 가사와 뮤직비디오 내용만큼 낭만적

이지 않다. 사회적 약자에 위치한 성소수자 집단은 여전히 차별과 혐오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난 6월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됐던 서울광장 반대편에는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시위 역시 함께 개최됐다. 성소수자 '반대' 세력이 들고 있는 피켓들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문구로 가득했다.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는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게 '동성애에 반대하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마치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듯 말이다. 성소수자가 처해있는 현 사회의 현실의 모습이 이렇다. 콘텐츠에서 재현되는 것처럼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습보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 하며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언어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콘텐츠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다루면서 사회적 소수자를 가시화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의견 역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소수자가 처한 차별과 혐오를 숨기게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차별을 겪는 상황에 놓인 소수자를 역경을 극복하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은 실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왜곡된 모습이다. 온전히 강자의 시선에서 낭만화된 소수자의 모습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에서 소수자 집단을 재현할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강자의 입장에서 표현되는 소수자는 그들 목소리를 잃고 강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모습으로만 재현된다. 당장 세상이 뒤집히고 세계가 뒤바뀌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소수자를 재현함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는 있을 것이다. 소수자는 앞으로도 현존할 것이기에 이러한 차별에 상처받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수자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소수자가 스스로에 대해 직접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다. 소수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어조를 갖고 있는지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들을 준비가 되어야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고 거침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강자의 언어로 표현된 소수자보다, 소수자가 내는 스스로의 목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다.

금주의 책



당신을 믿어요

김유나 지음. 서울 : 카시오페아, 2019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업을 가진 저자가 가족으로부터 받은 마음 속 깊은 상처를 입 밖으로 꺼내기 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울었고 그만두고도 싶었지만 "네 삶을 알고 나니까 위안이 되더라"는 말을 지팡이 삼아 겨우겨우 끝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불행이 닥치더라도 충분히 울고 난 후에 일기장을 펴고 당신이 겪은 불행을 쓰고 나면 희망에 대해 써보라고 조언합니다. 행운은 넘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의 성실한 목소리를 듣고 찾아온다고도 말합니다.

불안을 피하기 위해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시작하라고 당부합니다.

치유, 회복, 공감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이화인에게 추천합니다.

- 중앙도서관 사서 박순진 -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 책 / 4층 일반자료실 1581 김772c]